

인공지능 시대 ‘유·무인 복합 첨단해군’ 노 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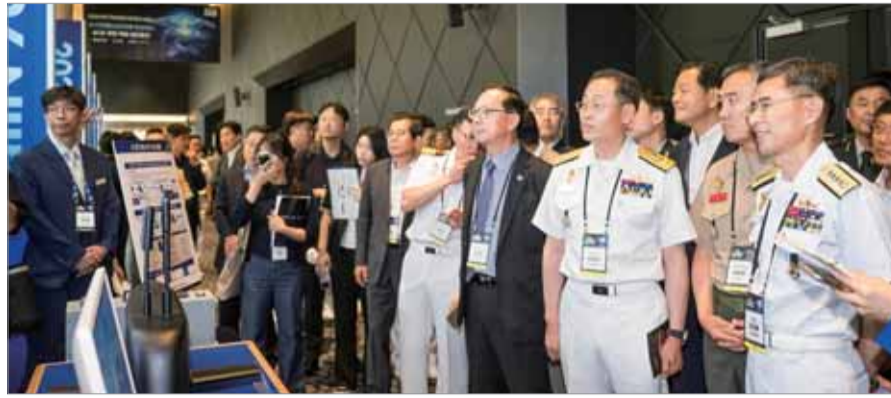
해군 지능정보화 정책발전 세미나
조직 보강·인프라 확충 등 논의

해군은 1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공동으로 ‘2026 해군 지능정보화 정책발전 세미나(NIIPS)’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AX)으로 완성하는 AI 유·무인 복합 첨단해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전재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홍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을 비롯해 군·산·학·연 관계자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환영사 △2026 해군·해병대 인공지능 및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시상식 △기조연설 △전시 부스 관람 △분과별 발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개회사에서 “해군은 AI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 임무영역에 걸쳐



17일 열린 ‘2026 해군 지능정보화 정책발전 세미나’에서 김경률(맨 오른쪽)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전시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해군 제공

신속하고 적극적인 AI 기술 적용이 가능토록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AX 거점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인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발전시키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과 작전개념도 내실 있게 구상하며 첨단 해군력을 튼튼하게 건설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분과별 발표는 지능정보화, 사이버전자기, 지휘통제·전투체계 등 3개 분과에서 총 18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이어졌다.

지능정보화 분과에서는 해군본부 안창근 중령의 ‘해군 AI 대전환(AX) 추진계획’ 등 6개 주제가, 사이버전자기 분과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심우성 책임연구원의 ‘해양 통신환경의 보안 사각지대 해소 방

안’ 등 6개 주제가 발표됐다. 또한, 지휘통제·전투체계 분과는 국방과학연구소 김동영 선임연구원의 ‘해군 무인체계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현실적 이해와 성공적 적용 방안’ 등 6개 주제가 다뤄졌다.

해군은 ‘해군 AI 대전환(AX) 추진계획’ 주제 발표를 통해 해군의 전체 임무 영역에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AI 적용을 위해 △AI 기술 및 체계 개발 △데이터 관리 강화 및 민간 활용 증진 △AI 조직 정비 및 민·군 협력 △AI 제도 개선 및 군내 인재 양성 등 4대 추진 중점을 소개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이용태(준장) 해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은 “해군 전 임무영역의 AI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군·산·학·연이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해군은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하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첨단해군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철저한 소방·방수 훈련...바다 위 재난 막는다

해군1함대, 동해해경청 훈련 지원

해군1함대 1훈련전대가 바다 위 재난 상황에 대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해경청)과 굳건한 공조를 다졌다.

1함대는 17일 “1훈련전대는 지난 10일과 이날 동해 군항 육상훈련장에서 동해해경청 경비함정 승조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소화·방수 훈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함대는 2015년 동해해경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훈련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함정 내부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1훈련전대의 육상훈련

장에서 진행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훈련에서 해경 승조원들은 실제 화재 및 침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해 △소화장구류 착용법 및 화재진압 △방수기구 운용법 및 침수현장 방수 등의 절차를 실전처럼 숙달했다.

훈련에 참가한 해경 승조원 한재운 순경은 “1훈련전대의 전문적인 교육 아래 실제 현장과 같은 시설에서 소화·방수 절차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1함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동해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보였다.

정일권(상사) 1훈련전대 육상3훈련대



동해 군항 육상훈련장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승조원들이 방수 훈련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관찰관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침수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는 물론 치명적인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대처능력 완비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며 “앞으로도 해경 승조원들을 위한 훈련 지원에 적극 나섬으로써 동해상 군·경 통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확립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정성으로 모은 헌혈증 기부...호국보훈의 달, 생명 나눔으로 국민 사랑 실천

공군19전비·육군35사단, 기증 동참

우리 군 장병들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헌혈증을 내놓으며 ‘호국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공군19전투비행단(19전비)은 17일 비행단 숫자 ‘19’의 의미를 담아 헌혈증 1009장을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병사들이 범국민적 헌혈운동에 참여하며 자발적으로 모아온 헌혈증을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병사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기적인 헌혈을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행사에서는 김세훈(준장) 19전비 단장이 부대를 방문한 임군빈 충북혈액원장에게 헌혈증 1009장을 직접 전달했다. 충북혈액원은 지속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 문화



17일 김세훈(왼쪽) 공군19전투비행단장이 임군빈 충북혈액원장에게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 1009장을 기증하고 있다. 부대 제공

정착에 적극 동참한 19전비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행사를 계획한 구혜민(소령) 항공의무대대장은 “병사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와중에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헌혈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면서 “병사들의 소중한 헌혈이 담긴 헌혈증이 지역 사



육군35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 장병들이 17일 원광대학교 병원에 헌혈증 300장을 기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회에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군대로서 민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육군35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도 같은 날 헌혈증을 기증하며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박진표(중령) 대대장을 비롯한 부대원들은 원광대학교 병원을 방문해 헌혈

증 300장을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국가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장병들의 뜻을 모아 추진됐다. 기증한 헌혈증은 환자들의 진료비와 수술비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기증에는 평소 꾸준히 헌혈에 동참해 온 장병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누적 헌혈 50회 이상으로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금장을 보유한 김지영 대위도 생명 나눔 활동에 함께했다. 김 대위는 “헌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앞으로도 생명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35사단 정보통신대대 장병들이 전달한 헌혈증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채무·박상원 기자